

# “우리는 내일의 리더”

### 무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셀프 리더십 캠프 운영 자신감·도전 정신·친구에 대한 이해와 배려심 형성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서정분)는 지난 5~7일, 2박 3일 일정으로 무주관내 5개 지역 아동센터 아동 및 지도자 142명과 함께 여름방학 셀프 리더십 캠프 ‘우리는 내일의 리더’를 진행했다.

이번 여름방학 셀프 리더십 캠프는 친구들과 함께 하는 활동을 통하여 나를 잘 이끄는 셀프 리더십을 바탕으로 자신감과 도전 정신을 심어주고 친구에 대한 이해와 배려심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마련 하였다.

2박 3일 동안 ‘나의 꿈 찾는 날’, ‘나를 만드는 날’, ‘나를 이기는 날’을 주제로 집단미술치료활동, 협동게임, 한반의 장기자랑, 무주반디랜드 수영장에서 수영 물싸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고 청소년들이 시원한 여름방학을 즐길 수 있었다.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아이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도시에 위치한 워터파크 체험과 리더십 캠프를 격년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대규모의 인원이 함께하는 이런 프로그램의 진행을 계획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예산 부족이다.

그러나 매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주)무주양수발전소의 사업지원사업으로 이번 캠프도 원만하게 진행 할 수 있었다. 또한 이번 캠프에는 무주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 백성기)의 수영장 이용권 후원으로 야외수영장에서의 물놀이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5~7일 무주관내 5개 지역아동센터 아동 및 지도자 142명과 함께 ‘우리는 내일의 리더’를 진행했다.

덕분에 아이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이번 캠프에 참가한 5학년 한 학생은 “셀프 리더십이 어떤 것인지 잘 몰랐었는데 나를 어떻게 관리하고 이끌어 가야하는지 배웠다. 또한, 모르는 친구들과 함께 협동놀이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쑥스럽기도 했지만 친구들과 협력하고 배려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귄 수 있어서 좋았다.” 라고 소감을 이야기 했다. 서정분 센터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관리 할 수 있는 셀프리더십의 함양과 협동심, 배려심으로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바른 청소년으로 성장하길 바란다. 또한 이처럼 큰 규모의 캠프는 예산의 어려움으로 지역자원이 없다면 진행할 수 없는데 매년 빠짐없이 도움을 주는 무주양수발전소와 이번 캠프에 도움을 주신 무주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에게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 안전면 포도 작목반, 선진지 견학 다녀와

진안군 안전면 포도 작목반(반장 황관선)은 7일 작목반 회원과 직원 등 30여 명과 함께 포도재배 선진지인 충북 옥천과 영동군으로 견학을 다녀왔다.

옥천 포도연구소를 방문한 작목반 회원들은 우리나라 최대 생산품종인 캠벨얼리를 대체할 신품종 연구에 대한 경의를 시작으로 포도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대한 현장경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영동 와이너리에서는 포도를 활용한 와인제조와 숙성, 보관 방법 등을 배우고 빵소, 블루베리 와인을 사용하는 등 체험을 통해 포도 가공식품 시장의 확대방안을 함께 고민했다.

황관선 반장은 “이번 견학을 통해 배운 성공적인 운영사례를 안전에 접목하여 작목반이 더욱 활성화 되고 농가 소득이 늘어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민 기자

### 남원경찰, 지역공동체치안 협의체 회의 개최

남원경찰서(서장 함현배)는 7일 초동 마루에서 지역공동체치안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지역공동체치안 협의체는 각 기능 간 연결·조정·협업(3C) 활성화로 종합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구이며, 남원서에서는 매주 수요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당직 신고사건 처리와 관련 기능별 범죄예방 계획을 공유, 남원기관·단체 등 공동체와의 범사회적 파트너십 구성을 논의했다. 한편 함현배 서장은 “살기 좋은 남원, 행복한 남원시를 만들기 위한 범죄예방 기능별 협력체계를 구축해 범죄예방 및 현장대응력 강화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무주경찰, 사회적 약자 보호 '정성치안' 대토론회 개최

무주경찰서(서장 박종삼)는 7일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여성·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종합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책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각 기능별 10개 과·계 팀장이 참여해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추진단의 주요내용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기능·대상별 내실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을 하나로 모았다.

박종삼 서장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정성을 다하여, 여성·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고 행복한 무주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 남원경찰, 현장 교통안전교육

남원경찰서(서장 함현배) 7일 아영면 사무소를 찾아 이장 30여명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펼쳤다.

이날 교육에서는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을 소개하고,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음주행소니를 일으켜 다른 차량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 등 음주운전 사고 영상을 통해, 음주운전은 단순히 실수가 아닌 명백히 범죄라는 것을 설명하며 경각심을 깨우는 시간을 가졌으며, 시민들이 제일 관심있는 불법주정차 문제와 관, 즉시 과태료 부과 가능한 ‘안전신문고’ 어플 사용방법 등을 소개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무진장소방서, “불나면 대피 먼저 하세요”

무진장소방서(서장 박덕규)는 화재 및 재난발생 시 대피가 늦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불나면 대피 먼저’라는 안전의식 전환의 중요성을 전했다. 이는, 가연성 건축자재의 사용 증가로 화재 발생 시 치명적인 유독가스가 대량 발생하고 급격한 연소 확대로 대피가능한 시간이 짧아, 대피를 우선시하는 사회적 문화조성으로 다수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목적이 있다.

이에, 무진장소방서에서는 각종 소방안전교육 등에서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재 발생 시 즉시 비상벨 등 화재 경보를 울리고 큰 소리로 알려 인원을 즉각적으로 대피하는 행동요령을 숙지하도록 홍보하여 불나면 대피 먼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조용식 전북경찰청장, 고창에서 치안설명회 가져

조용식 전북지방경찰청장이 7일 고창경찰서(서장 박정환)를 방문, 공동체치안 활성화를 위한 주민과 함께 하는 치안행정을 구현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마련된 치안 설명회는 협력단체장, 마을이장 및 주민 등 90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경 협력 치안 및 범죄예방활동에 기여한 김문식씨 등 5명에게 감사패와 감사장을 수여하고, 평소 협력치안에 적극 협조해 준것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한, 도민에게 따뜻하고 믿음직한 전북경찰로 다가가기 위해 4대 실천가치 ‘정성·정의·정감·정진’을 토대로 주민안전, 사회정의, 현장활력 3대 정책목표 등 치안정책 추진방향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주민 및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소통·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조용식 전북경찰청장은 사회복지시설 ‘고창행복원’에 방문하여 원생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어려움은 없는지 세밀하게 살폈다. 환경 때문에 절망하거나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힘이 되어주고 소망을 꿈꾸도록 응원했다.

조용식 전북경찰청장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속적인 노력과 소통·화합을 통해 출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이중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이광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nF1 + 카제이산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